

접는선
(실제 인쇄물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SEOULBOTANICPARK Botanic Center Guide Map



식물문화센터 지하 2층~4층

식물 주제의 전시, 교육, 행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식물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식물문화플랫폼입니다. 온실과 교육문화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온실에는 열대와 지중해 기후를 바탕으로 독특한 식물문화를 발전시킨 세계 12개 도시 식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공간에서는 각종 식물 전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편의시설(카페·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플렛은 서울식물원 온실을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본 따 만들었습니다.

1F



씨앗도서관

토종씨앗 400종이 전시된 공간으로, 책처럼 씨앗을 대출하고 키워서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운영시간 | 09:00~17:00(월요일 휴관)

4F



- 화장실, 키즈카페, 푸드코트, 엘리베이터, 카페테리아, 카페, 도서관, 주차장, 수유실, 장애인 화장실, 매표소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비고
어른	5,000	어린이 6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	3,000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2,000	어른 19세 이상 65세 미만
		단체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이용 및 관람안내

이용구간	주제정원, 온실
이용시간	평시(3월~10월) 09:30~18:00 *입장마감 17:00 동절시(11월~2월) 09:30~17:00 *입장마감 16:00 *매주 월요일 휴관

30% 할인

-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면제

- 6세 미만, 65세 이상
- 1~3급 장애인(보호자1인 포함), 4급~6급 장애인 본인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증소지자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관람 유의사항

식물 보호를 위해 주제원 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그늘막, 돛자리, 음식물 섭취, 삼각대 설치, 키토티 등 놀이기구, 애완동물 출입, 식물 채취, 흡연, 음주



보타닉홀

식물과 식물문화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공간입니다.

2F



식물전문도서관

식물, 생태, 정원, 조경 등 국내·외 식물 관련 전문서적 7천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DVD, 연속간행물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유하고 있어 식물과 식물문화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09:30~18:00(월요일·법정공휴일 휴관)

접는선
(실제 인쇄물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인도보리수, 초량목
1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지형과 환경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합니다. 거대한 맹그로브 숲이 있으며 라플레시아, 타이탄아름 등 독특하고 고유한 식물이 서식합니다.

② 하노이 베트남

망고, 카카오, 파파야
베트남은 국토 3/4이 경사가 있는 구릉지로 지형이 복잡합니다. 북부 아열대부터 남부 열대까지 다양한 기후로 인해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③ 보고타 콜롬비아

커피, 코코넛야자
남미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름을 딴 콜롬비아는 세계 3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해 열대 기후를 띠며 대부분의 도시가 안데스 산지에 위치합니다.

④ 상파울루 브라질

빅토리아수련, 맹그로브
서울식물원 열대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으로 아마존 밀림을 재현했습니다. 아마존에는 지구 생물 약 10%가 살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관

적도 근처 평균 기온 18°C 이상인 지역으로, 지구 생물종 절반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 열대 우림, 열대 몬순, 사바나 기후 등으로 나뉘집니다.

A 부처가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인도보리수
수명이 길어 최대 3,000년까지도 산다고 알려져 있다. 가지에서 공중뿌리가 뻗어 나와 옆으로 점점 커진다. 석가모니가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알려져 인도에서는 나무 근처에 절을 짓거나 절 둘 안에 심기도 한다.

B 폭탄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폭탄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반면 검고 냄새가 고약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35m까지 자란다. 한 나무에 폭탄처럼 둥글고 무거운 열매 100여 개가 주렁주렁 열린다. 서울식물원 온실에 있는 폭탄수는 대만에서 수입되었다.

C 세상에서 가장 큰 연꽃 빅토리아수련
1837년 영국인에 의해 아마존 강에서 발견돼 빅토리아 여왕이 붙였다. 직경 3m까지 자라는데 잎 뒷면에 수많은 가시가 나있다. 꽃은 밤에만 피는데 첫날은 파인애플향의 흰색의 암꽃이, 다음날 저녁에는 분홍색 수꽃이 핀다.

D 코끼리 귀를 닮은 콜로카시아 기간테아
구근으로 번식하는 토란의 일종으로 최대 4m까지 자란다.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빠르게 자라는데 커다란 잎의 모양을 본 따 '코끼리 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식용하려면 토란처럼 옥살산칼슘을 제거해야 한다.

E 살아 있는 화석식물 용혈수

수명이 5,000~7,000년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식물 중 하나다. 나무 수액이 피를 연상케 하는 붉은색이라 '용혈수'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액은 의약품 또는 바이올린에 색과 광택을 입히는 바니시 재료로도 사용한다.

F 지중해의 상징 올리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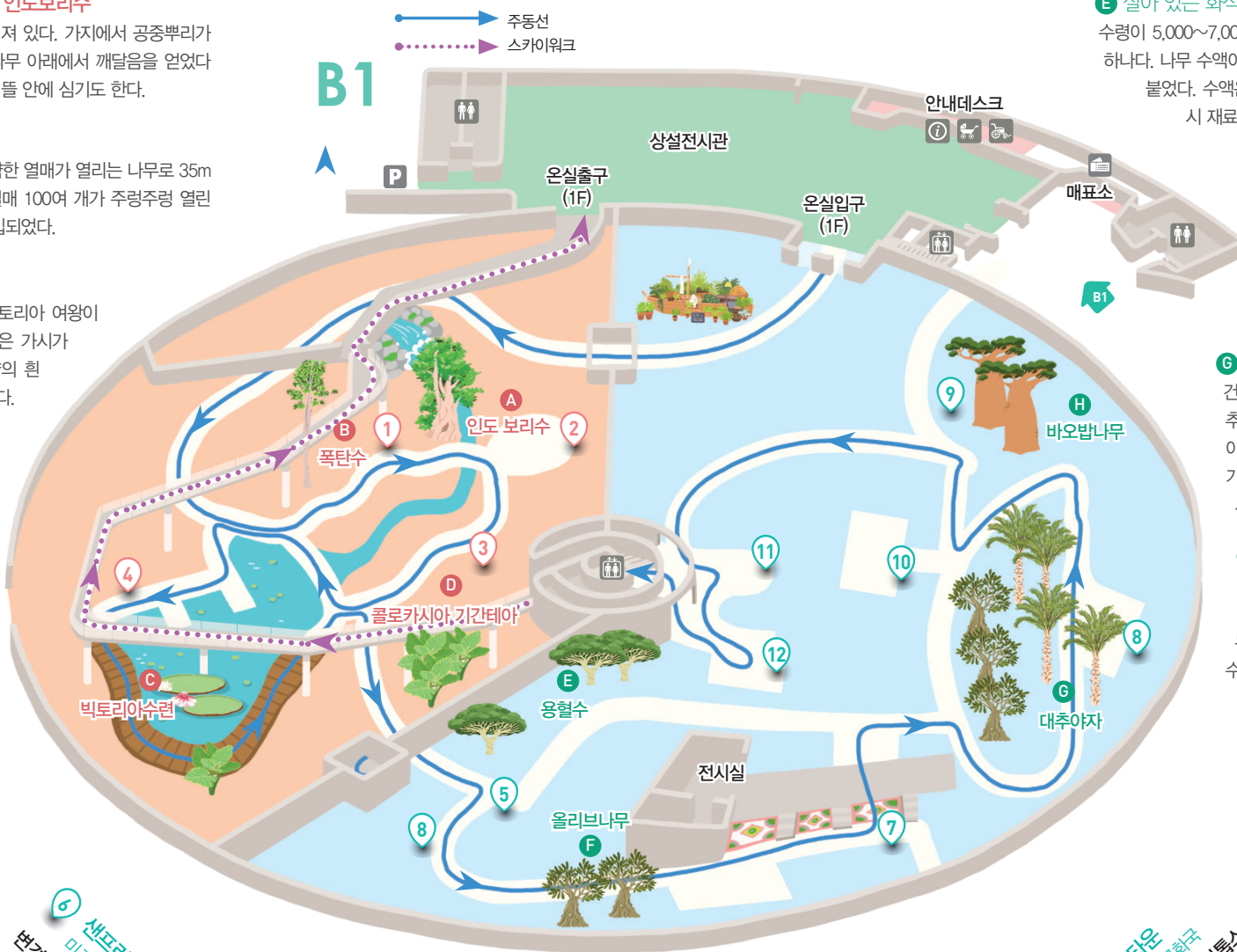
높이 10m까지 자라며 잎은 은빛 녹색으로 건조, 질병에 강하다. 올리브 열매는 지중해 지역 식생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19세기 인상주의 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식물원 온실에 있는 올리브나무는 스페인에서 들어왔다.

G 사막의 꿀 대추야자

건조한 사막에 사는 야자나무로 30m까지 자란다. 대추 같은 검붉은색 열매는 사막지방의 주식으로 당분이 많아 생으로 먹거나 잼, 젤리, 꿀, 술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서울식물원 온실의 대추야자는 태국에서 수입해 왔다.

H 생명의 나무 바오밥나무

굵은 몸통 속에 물을 3톤 이상 머금을 수 있어 건기에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물을 제공하는 '생명의 나무'다. 뿌리처럼 얇힌 가지가 뻗은 모습 때문에 신이 실수로 나무를 뒤집어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중해관

여름은 구름이 적고 기온이 높아 건조하나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온화한 지역입니다. 여름철 일조량이 풍부하여 포도, 올리브, 코르크 등의 농작물을 널리 재배합니다.

⑧ 아테네 그리스

올리브, 월계수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한 그리스는 산이 많아 기후대가 다양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아신스, 사이프러스, 아네모네가 자생하며 포도, 올리브 등 지중해성 작물을 재배합니다.

⑨ 퍼스 호주

바오밥나무, 유칼립투스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 호주는 삼림 대부분을 수 백 종의 유칼립투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에 자생하는 호주 물병나무(Queensland bottle tree)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⑩ 이스탄불 터키

하와이무궁화, 장미
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한 터키는 내륙부터 지중해에 맞닿은 해안까지 기후가 다양해 풍부한 식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툴립의 원산지인 터키는 스탠볼튤립축제가 열립니다.

⑪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물병나무, 리튬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웅장한 산맥과 나라 전체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형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수도 케이프타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테이블마운틴국립공원이 있습니다.

⑫ 타슈켈트 우즈베키스탄

무화, 무화과, 석류
비단길(Silk Road)의 길목 우즈베키스탄은 비단뿐 아니라 등산용 장비와 다양한 문화유산의 중심지입니다. 사막성 기후로 연중 건조하며, 세계 목화의 약 60%를 생산합니다.

⑤ 바르셀로나 스페인

사이프러스 용혈수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은 절반이 고산지대로 농지 면적이 국토의 1/3에 불과합니다. 도시 대부분이 청명한 지중해성 기후로 포도, 오렌지, 올리브 등을 기릅니다.

⑥ 샌프란시스코 미국

변경주선인장, 용혈수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북부에서 남부로 갈수록 사막이 넓게 펼쳐집니다. 서울식물원 온실에 재현되어 있는 사막에서 다양한 선인장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⑦ 로마 이탈리아

레몬그라스, 로즈마리
이탈리아는 북부에서는 포도 등 과실수를, 남부와 섬 지역에서는 감귤류와 올리브를 널리 키웁니다. 서울식물원 온실 로마광장에서는 이탈리아 노단식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